

# 마음을 나눕니다

서초 글라스박스 박선생님  
유선생님, 송선생님 축의금 감사드려요  
-박지연

테니 안경원 선생님  
둘째 다영이 돌 축의금 감사드려요  
-윤인성 과장

남대문 안경 사장님  
off - road 저도 태워주세요  
-정진수

인천 드라마 장윤진 선생님  
3년 동안 바라고 바라고 바라는 결혼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잘 사세요  
-김선경 대리

롯데리 안경원 사장님  
12월 달에 정말 감사드렸어요 아시죠?  
-엄유진 대리

그동안 인천의 안경원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잊지 마주세요  
-김명옥

연세 안경 사장님  
결혼식 축의금 주신 거 잊지 않고 있어요 감사해요.  
2007년 한해도 행복하세요  
-이지영 주임

노량진 안경박사 사장님  
자꾸 밥 먹고 가라고 하지 마세요 배불러요 ^^  
그래도 늘 감사합니다.  
대한(수진) 선생님  
항상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그러면 팬클럽 창단식 합니다.  
씨티 안경원 사장님  
매장 진짜로 신경 많이 쓰십니다 알려주세요!  
-류승한 주임

## 아큐브®와 마음을 나눕니다

우리 안경원의 자랑거리, 축하 메시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는 동료나 친척,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어떤 글이라도 좋습니다. 보내주신 글은 다음 호 EYE SPECIALIST에 실어 드리고, 글을 보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기간 3월 31일까지 ■문의 080-023-0022

●소속 안경원

●코드 번호

●이름

ACUVUE  
THE DIFFERENCE IS REAL



최고의 眼전문가가 선택하는 파트너-아큐브®

# EYE SPECIALIST

2007년 4호

"EYE SPECIALIST" 는 존슨앤드존슨 비전케어 고객을 위한 소식이입니다.  
아큐브®뉴스레터 / 발행일 2007년 2월 / 발행인 (주)한국존슨앤드존슨 / 발행처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91 국제센터빌딩 11F (주)한국존슨앤드존슨 비전케어

Johnson & Johnson Vision Care

HOT ISSUE

## Contents

### 제품 소식

아침의 촉촉함을 그대로  
원데이 아큐브® 모이스트™

'원데이 아큐브® 모이스트™'와 함께하는  
촉촉한 겨울 맞이 축제!

### 아큐브® 소식

DEFINE YOUR STYLE FOR CHRISTMAS  
DEFINE Your Beauty Club 2nd Launch  
아큐브® "눈 건강" 캠페인  
아큐브® 웹진 창간호 발간  
1/4 분기 광고 지원  
난시 교육팀 소개  
(주)한국존슨앤드존슨 GMP 인증 획득  
(주)한국존슨앤드존슨 비전케어의 사회봉사 활동

### 비전케어 정보

(주)한국존슨앤드존슨 비전케어 교육센터™ 교육일정  
렌즈 착용자들이 겪는 건조안의 예방과 관리 방법

### 업계 뉴스

온라인판매 근절을 위한 산협대책기구 '신설'  
2007 DIOPS  
직장인의 눈, 늙어가는 시기 빨라지고 있다

### 안경원 탐방

세번째 주인공 - 아이마켓 안경원

### 아큐브®와 마음을 나눕니다

아큐브®에서 온 편지

새해에는 아큐브®와 함께 행복하세요

2007년에도 건강하고 밝은 눈을 위한  
아큐브® 가족이 되겠습니다

ACUVUE®



ACUVUE  
THE DIFFERENCE IS REAL

www.acuvue.co.kr

## 아침의 촉촉함을 그대로 원데이 아큐브® **모이스트™**

새로 나온 원데이 아큐브® 모이스트™는 입증된 에타필콘A 재질에 라크리온™ (LACREON™) 기술로 렌즈에 눈물과 같은 습윤인자를 함유해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는 플레티넘급 렌즈입니다. 따라서 기존 렌즈의 건조함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 아침부터 밤까지 눈의 촉촉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소비자,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 아큐브®는 눈의 촉촉함을 그대로 유지 시켜주는 원데이 아큐브® 모이스트™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요 타겟이 많이 시청하는 케이블 TV의 광고를 통해 눈의 촉촉함을 유지해 줌으로써 생활의 활력까지 전해주는 원데이 아큐브® 모이스트™의 특징을 알리고 있습니다. 기존 착용 렌즈로 인해 눈이 건조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직장 여성이 원데이 아큐브® 모이스트™를 착용하게 됨으로써, 눈의 촉촉함과 편안함을 오랫동안 유지 할 수 있게 되어 상쾌한 기분으로 일에 열중할 수 있다는 광고 스토리입니다. 극장에서도 같은 내용의 광고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더 건조한 겨울을 맞이하여 수분을 컨셉으로 한 온팩 프로모션 "촉촉한 겨울맞이 축제"를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진행했습니다. 원데이 아큐브® 모이스트™ 2팩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뉴트로지나 웨이셜 마스크 5개입을 증정함으로써 원데이 아큐브® 모이스트™의 제품 특성을 잘 전달할 수 있었던 행사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데이 아큐브® 모이스트™ 배너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눈에도 수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촉촉함이 배어있는 크리에이티브로 제작하여 원데이 아큐브® 모이스트™의 특징점을 잘 살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지난해 5월 출시된 원데이 아큐브® 모이스트™ 는 플레티넘 렌즈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선풍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사용후기를 올려주신 분들 역시 대다수가 눈의 건조함 때문에 하루 종일 렌즈 착용을 할 수 없었으나 원데이 아큐브® 모이스트™를 사용한 이후 편안한 착용감이 하루 종일 지속된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 원데이 아큐브® **모이스트™** 와 함께하는 촉촉한 겨울 맞이 축제!



(주)한국존슨앤드존슨 비전케어에서 겨울을 맞아 12/15 ~ 1/14일까지 건조한 눈을 촉촉하게 해주는 '원데이 아큐브® 모이스트™'와 함께하는 촉촉한 겨울 맞이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차가운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고생하는 눈과 피부에 촉촉함을 유지시켜 주고자 마련한 행사로 플레티넘 수분렌즈 원데이 아큐브® 모이스트™ 2팩 구매 시 뉴트로지나 T&U 스마트 마스크 1팩을 증정했습니다.

원데이 아큐브® 모이스트™는 기존 원데이 아큐브®의 편안함에 라크리온™ (LACREON™)기술로 인해 렌즈 착용기간 중 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특징이며, 겨울철 밀폐된 공간 내에 히터 사용으로 인한 건조한 실내 환경 속에서 하루 종일 렌즈를 착용해도 밤까지 촉촉한 착용감을 유지시켜주는 혁신적인 렌즈입니다.

원데이 아큐브® 모이스트™는 기존 아큐브®가 가지고 있는 위생성, 사용의 용이함, 편안한 착용감 및 UV 차단 기능과 같은 장점에 라크리온™ 기술로 더욱 촉촉해진 착용감까지 갖추어 일회용 렌즈의 플레티넘 기준을 세웠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경고: 자외선 차단 콘택트렌즈는 눈과 눈 주위를 완전히 보호하지 않으므로 자외선 차단 고글이나 선글라스 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시에 따라 자외선 차단 안경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주의: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백내장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크리스마스를 위한 당신의 스타일을 연출하세요 (DEFINE YOUR STYLE FOR CHRISTMAS)”

- 11월 9일, W호텔에서 프리미엄 서클렌즈 '원데이 아큐브® 디파인™ 비비드 스타일'의 "디파인 유어 스타일 포 크리스마스" 행사 진행
- 인기스타 윤정희와 박은혜가 참석해 '원데이 아큐브® 디파인™ 비비드 스타일' 소개
- '디파인 유어 뷰티 클럽' 2기 창단 행사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청경 원장 참석 및 파티 진행



(주)한국존슨앤드존슨 비전케어에서는 2006년 11월 9일(목) W호텔 Extreme WOW Suite에서 'Define Your Style for Christmas'를 주제로 원데이 아큐브® 디파인™ 비비드 스타일을 통해 크리스마스 파티 주인공이 되는 눈빛 메이크업과 스타일을 배우는 클래스와 파티를 진행했습니다.

원데이 아큐브® 디파인™ 매니아인 눈이 아름다운 연예인 '하늘이시여'의 윤정희와 한류스타 박은혜가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여 원데이 아큐브® 디파인™ 비비드 스타일에 대한 그들의 애정을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유명 연예인들의 모임에 이어 원데이 아큐브® 디파인™ 비비드 스타일의 매력에 푹 빠진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트렌드세터'들의 모임으로 구성된 '디파인 유어 뷰티 클럽' 2기 모임의 창단 행사를 겸했습니다. 특히, 연말 파티나 모임에서 한눈에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스타일을 주제로 전문 스타일리스트와 디파인 인도서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청경 원장의 '크리스마스 파티룩 스타일 & 메이크업 제안'이 펼쳐져 주목 받았습니니다.



특히 전문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PR 담당자, 뷰티브랜드 담당자, 파티 플래너, 패션 컨설턴트, 큐레이터 등 10명의 커리어우먼이 직접 클래스에 참가하여, 김청경 원장의 원데이 아큐브® 디파인™ 비비드 스타일을 활용한 아이 메이크업 제안과 스타일 제안을 통해 크리스마스 파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노하우를 알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파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생기발랄하고 반짝이는 눈빛과 패션으로 단장한 후 '디파인 유어 스타일 포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즐거운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2006년 12월 애드버토리얼을 통해 주요 패션매거진에 게재되었고, 여성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는 동아 TV를 비롯한 케이블 채널에 소개되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 DEFINE Your Beauty Club 2<sup>nd</sup> Launch



▲원데이 아큐브® 디파인™ 비비드 스타일 크리스마스 파티 참석자들



▲행사에 참여한 탤런트 박은혜



▲행사에 참여한 탤런트 윤정희



▲메이크업 중인 김청경 원장

## 아큐브® “눈 건강” 캠페인

아큐브®는 2005년 말에 이어 2007년 상반기에도 눈 건강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취지는 소프트 렌즈를 착용할 때 이물감, 건조함, 충혈, 염증 등을 경험하면서 점차 눈 건강을 우려하게 되는 소비자들에게 일일 착용 렌즈로 전환하여 매일매일 새 렌즈를 사용함으로써 건강하게 렌즈를 착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눈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이 캠페인이 소비자들의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세요

2005년도 아큐브® 눈 건강 캠페인에는 전국 약 800 여개의 안경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551명의 소비자가 착용하던 병 렌즈를 반납하고 아큐브®를 구매하여 성공적인 캠페인이었다는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2007년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눈 건강 캠페인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07 아큐브 눈 건강 캠페인 행사 안내

기간 : 2월 26일 ~ 4월 24일

대상 : 장기 착용렌즈 소비자

방법 : 소비자 - 쓰던 장기 착용렌즈를 반납

• 원데이 제품군 구매 시 10알 증정 • 2주 제품군 구매 시 4알 증정

### 행사 참가 방법- 소비자가 온라인에 등록한 경우

온라인 쿠폰 출력 후 안경원 방문 → 안경사는 구매제품, 구매도수 및 배송지를 체크 후 온라인 전송 또는 온라인 쿠폰 하단의 구매 정보 체크 후 팩스 발송 → 온라인 쿠폰 유효부분 + 병렌즈를 렌즈 수거함에 보관 → 등기우편으로 보상렌즈 수령 (온라인 혹은 팩스 전송일로부터 일주일 소요)

### 행사 참가 방법- 소비자 미등록 혹은 인터넷이 불가능한 경우

안경원에 비치된 캠페인 참가신청서 작성 → 당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팩스 발송 → 참가 신청서의 앞정(원색)을 수거된 렌즈와 함께 병렌즈 수거함에 보관 → 등기우편으로 보상렌즈 수령 (팩스 전송일로부터 일주일 소요)

## 온라인 아큐브® 유저들을 위한 아큐브® 웹진 창간호 발간!

아큐브® 웹진은 아큐브® 소비자들에게 e-Newsletter 를 통한 회원반응을 근거로 효과적인 회원관리 및 고객별 전략근거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접점에서 효과적인 로열티 고객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큐브® 웹진은 연 4회 발간하며 Trend Inventor(유행을 직접 만들고 선도한다)와 WELL-BEING(건강의 중요함, 그리고 내 삶의 여유), 합리적 소비(품질, 가격, 디자인, 서비스도 구입 고려 대상), 입소문(구매 결정시 주변인의 의견, 추천에 영향), 안경사 소식(Q&A, 궁금해요)을 함께 전함으로써 정보 알림과 구매유도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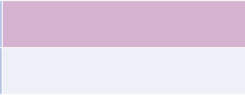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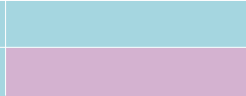




<http://www.acuvue.co.kr/cafeAcuvue/webzine.asp>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매거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07년 1분기 광고 지원

 원데이 아큐브® 모이스트™  원데이 아큐브® 디파인™ 비비드 스타일

	1월	2월	3월
케이블TV			
극장			
잡지			
옥외광고			
온라인 광고			

## 난시 교육팀 소개

팀장(조용준 차장), 난시 교육 담당 (정승연, 김경순, 봉익경, 이현미)



이큐브® 난시 전문점에 대한 이큐브®만의 차별화된 지원의 하나로, 이큐브® 어드밴스™ 난시 전용을 취급하는 매장에는 담당 영업사원 외에 지정된 난시 교육 담당자가 매장을 방문, 제품에 대한 맞춤 교육과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큐브®의 난시 제품에 대해 안경사 선생님들이 보다 가깝게 제품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난시 담당이 방문하는 주목적입니다.

난시 교육팀은 모두 관련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큐브®의 난시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의 교육을 준비하여 매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매장에 필요한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시 교육 담당들의 지원 활동으로 이큐브® 난시 전문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 (주)한국존슨앤드존슨, GMP 인증 획득

식품안전의약청에서, 2004년 의료기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의료기기 GMP제도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5월 31일자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이에 2007년 5월 31일자부터는 GMP 지정을 받지 아니한 업소는 지정을 받을 때까지 모든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며, 만일

판매행위를 할 경우에는 품목 허가 제조 및 수입금지 또는 품목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준비하여 (주)한국존슨앤드존슨은, 지난 2006년 12월 14일자로 수입 콘택트렌즈 업계로는 최초로 GMP 인증을 획득했다.

※ 의료기기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의료기기제조, 수입 및 품질관리기준'으로 일컬어지며, 품질이 우수한 의료기기를 생산하기 위해 원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에 이르기까지 지켜져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품질보증체계임.

## (주)한국존슨앤드존슨 비전케어의 사회봉사 활동

2003년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이큐브®는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지난 3년간 'Sight for kids' 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아동의 조기예방 가능한 안질환을 발견해 내는 것을 돕고 안전문가에게 치료를 받도록 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건강한 눈의 중요성을 아동, 부모, 선생님들에게

교육시키고 조기 안검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자가 시력표 등을 제작해 배포하였습니다.

2006년부터는 홀트 아동복지회와 결연을 맺고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이르고 회사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VISIONCARE INFORMATION

## ACUVUE® 비전케어 정보

### 2007 TVCI 교육과정

좀 더 전문적인 지식전달을 하기 위하여 2007년 교육과정은 2일간의 기본 콘택트렌즈 교육과정과 2일간의 심화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시에 눈도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시력 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기본 콘택트렌즈 과정은 환자를 응대하는 방법부터 진찰 및 콘택트렌즈 피팅 과정을 난시 교정 렌즈 실습과 함께 진행합니다. 따라서 더 자신감 있는 기술습득과 함께 진찰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심화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① 설문조사에 의하면 상당한 비율의 학생들이 눈과 관련된 학습장애를 겪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학습장애의 원인파악을 위한 시력검사와 치료 방법들에 관해 콘택트렌즈와 관련하여 심화과정에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① 김영현, 한국행동검안학술대회 발표자료 Jan 2007

### (주)한국존슨앤드존슨 비전케어 교육센터™ 3월 교육일정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6	7	8 콘택트렌즈 임상 기본과정 (곽현주 선생님) 전문 커뮤니케이션 기본과정 (김경희 교수님)	9 콘택트렌즈 임상 심화과정 (곽현주 선생님) 전문 커뮤니케이션 심화과정 (김경희 교수님)
13	14 특수 콘택트렌즈 교육과정 기본과정 (신진아 교수님 / 곽현주 선생님)	15	16
20 특수 콘택트렌즈 교육과정 심화과정 (김재도 박사님 / 김재민 교수님 / 곽현주 선생님)	21 특수 콘택트렌즈 교육과정 기본과정 (신진아 교수님 / 곽현주 선생님)	22 콘택트렌즈 임상 기본과정 (곽현주 선생님) 전문 커뮤니케이션 기본과정 (김경희 교수님)	23



THE VISION CARE INSTITUTE  
of  
Johnson & Johnson Korea Ltd.  
존슨앤드존슨 비전케어 교육센터

Professor Noel Brennan  
Brennan Consultants Pty Limited  
Melbourne, Australia, and Institute for Health and Biomedical Innovation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Brisbane, Australia

## 클리닉 정보

###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건조안 증상의 관리 - 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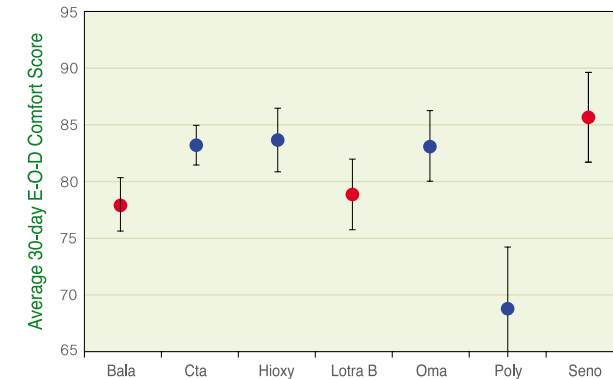
최근에 국제적인 시력 전문가인 브래넨 박사는 홍콩에서 이틀 동안 렌즈와 건조한 눈 관리의 최근 발달에 대한 심포지움을 진행했습니다. 홍콩 시력 측정 의사 협회와 홍콩 개인 시력 측정 협회, 존슨앤드존슨의 주도권인 The Vision Care Institute (TVCI)는 전 세계적으로 눈 전문가들을 위한 꾸준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렌즈로 인한 건조한 눈의 예방과 치료 방법

예방과 치료 방법	주의
순목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조함을 제거하기 위해 눈을 제대로 깜빡이는 법을 가르칩니다.</li> <li>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자가 유지할 수 있을 지가 문제될 수 있다.</li> </ul>
음식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메가-3 지방의 지방산은 건조한 눈의 염증을 일으키는 요소를 완화한다.</li> <li>오메가-6 지방의 지방산보다 오메가-3 지방의 지방산으로 바꾸는 것이 건조한 눈을 좋아지게 하고 렌즈 착용을 더 편리하게 한다.</li> </ul>
환경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어컨이나 높은 온도에서는 습도가 감소한다. 따라서 렌즈 착용자들의 눈은 더욱 건조해진다.</li> <li>건조한 곳이나 에어컨 틀어 놓은 방에 물 용기나 식물/화분을 두면 습도를 바꿀 수 있다.</li> </ul>
눈꺼풀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이봄샘이 막힌 것을 없애주면 건조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li> <li>눈꺼풀에 온찜질이나 마사지를 해주거나, 면봉으로 깨끗하게 닦아주면 건조함을 줄이는데 좋다.</li> </ul>
렌즈 사용시간 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 하루 동안 착용해서 오는 건조함을 줄여준다.</li> <li>하지만, 렌즈를 오랜 시간동안 끼면서 눈을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이며, 단순히 렌즈를 오래 착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li> </ul>
렌즈 타입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데이 렌즈 또는 정기교체형 렌즈로 바꾸면 건조함을 덜어준다.</li> </ul>
안약/인공눈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에 많은 종류가 있지만 효과적인 것은 없다.</li> <li>많은 실패와 노력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다.</li> <li>방부제가 들어 있는 것은 눈에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li> </ul>
레이저나 열응고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렌즈 착용자가 아니며 심하게 건조한 케이스에 적용한다.</li> <li>이렇게 심한 경우, 심하게 건조한 눈의 원인을 찾고 바로 치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li> </ul>

### 실리콘 하이드로겔이나 생체모방의 렌즈로 교체

브래넨 박사와 동료들은 한달 이상의 개인적인 연구를 통해 7가지 브랜드의 렌즈(실리콘 하이드로겔, 일반하이드로겔, 또는 생체모방 렌즈)의 편안한 착용감에 대해 236명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의 평가는 아나로그로 기록되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에타필콘 렌즈가 30일 착용하는 동안 매우 편안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생체 모방렌즈보다도 더 편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3) 개인 점수를 보면, 30일 동안 사용했을 때 세노필콘 렌즈 점수가 제일 많았고, 50% 이상의 실험 대상자들이 이 렌즈를 ≥95로 평가했습니다.



※표3: 렌즈 착용자들의 평가에 의한 (n=236) 7가지 렌즈 브랜드를 30일 동안 하루종일 썼을 때의 편안함

“실험 결과에 의하면 에타필콘 렌즈는 30일 착용하는 동안 매우 편안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생체모방의 렌즈보다도 뛰어났다.”

임상의/의사들은 건조한 눈을 진단할 때엔 종합적 증상으로 진단 합니다. 예전과 달리, 안약이나 인공눈물의 기본적인 치료법 외에, 이제는 다양한 치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렌즈 기술의 발달, 예를 들면, 수분 기술,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의 유효성입니다.

※ 이 기사에 사용된 자료는 브래넨 박사의 강의 내용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실리콘 하이드로겔과 함께 하는 미래”의 제품 Q&A는 다음 호에서 소개됩니다.

### 온라인판매 근절 위한 산협대책기구 '신설' 대한안경사협회, 관련업체들과 실무회의

[한국안경신문 178호]

지난 9일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는 조부의 행정부회장의 주재로 국내 콘택트렌즈 기업체 실무자들과 불법전자상거래 및 시험착용에 관한 실무회의를 가졌다. 중앙회 3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이날 실무자회의에는 조부의 행정부회장 이하 중앙회 제도개선위원 일동과 한국존슨앤드존슨비전케어의 김현철 이사와 손성은 차장, 바슈롭코리아의 박은혜 차장과 이준상 차장, 쿠파비전코리아의 손금수 차장, 한국시비비전의 최두형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콘택트렌즈의 불법 전자상거래가 회원 안경사와 업체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처벌규정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무료시험착용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부작용과 악용 사례 등을 밝히고 이를 방어할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조부의 제도개선위원장은 "온라인판매 근절을 위해 협회가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업체의 도움 없이는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회의가 서로가 공동번영의 길로 가는데 일조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가한 각 업체 실무자들은 현재 성행되고 있는 온라인판매에 대해 협회의 입장과 뜻을 같이

한다고 전제한 뒤 그간 협회의 제안대로 렌즈업체별 온라인판매 안경원에 대한 공급중지와 같은 제재조치 등의 성과를 설명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 등에도 해당국 지사를 통해 업무협조를 이루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 회의에서는 온라인 판매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과 제재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해 이를 적극 준수하기로 했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콘택트렌즈 제조 및 공급업체들은 온라인판매를 하는 안경원 및 안경사에게 렌즈공급을 일체 중단하기로 합의한다.
2. 온라인렌즈판매에 대해 적극 대응기 위하여 콘택트렌즈업체와 협회가 참여하는 상설 대책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한다.
3. 향후에도 온라인판매 근절을 위해 산협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동 대응하여 나가기로 합의한다.

유영수 기자(chatvi@hanmail.net)

### 2007 DIOPS

[한국 안경신문 180호]

다음달 개최되는 제6회 대구국제광학전(The 6th Daegu International Optical Show, 주최: 대구광역시 · 한국안경산업연합회, 주관: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이하 DIOPS)의 개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전국 안경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월 7일부터 9일까지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DIOPS는 아시아 3대 안경메카로 불리는 대구시가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의 광학전을 목표로 선보이는 국제광학전이다. 올해부터 행사 주관에 담당하고 있는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사업단장 김종식, 이하 KOISC)에 따르면 1월 현재 참가업체 유치는 총 126개 업체가

신청, 550여 부스, 94%의 신청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DIOPS에서는 15,488㎡ 넓이의 총 3개관에 안경테, 선글라스, 렌즈, 콘택트렌즈, 안광학기기, 관련기자재 및 부품, 안경 액세서리, 노인경 등 안경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안경사들에게 최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에 국제학술 심포지엄, 전국안경사대회, 안경디자인공모전, 안경패션쇼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되고 있어, 볼거리 면에서도 풍성한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용 기자(acay@naver.com)

## 직장인의 눈, 늙어가는 시기 빨라지고 있다



[뉴스 2006년 11월 4일]

최근 눈의 조절력을 과다 사용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인(老眼)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보통 노인들의 경우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끼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노인 때문에 가까운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려대안암병원 안과 김준현 교수는 "사람은 20대 이후부터 눈의 조절 능력의 고갈이 시작돼 연령이 증가하면 대부분 노안을 겪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같은 노안의 연령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김 교수는 "요즘 컴퓨터 사용이 많은 직장인 환자가 증가세"라고 전했다.

노안은 가까운 거리의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증세다. 보통 명시거리인 독서나 사무거리의 적정 수치는 약 30~40cm로 본다. 그러나 노안이 오면 점점 책이나 신문이 멀리 봐야만 보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 일상에 불편이 따른다.

직장인 정길훈(39,가명)씨는 출퇴근 지하철에서 책을 읽던 것이 최근 부쩍 힘들어져 안과를 찾았다. 책을 보면 두통도 일어났다. 검사 결과 '노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른 나이임에도 노안이 일찌감치 찾아온 케이스다.

게다가 평소에도 원시(遠視)증세가 있었던 정씨는 원래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던 환자. 원시인 경우 노안이 일찍 올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한다.

김준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원시는 평상시도 약간 조절력이 필요한 상태로, 가까운 책을 보기 위해서는 더 큰 조절력이 소모된다. 따라서 평상시 늘 조절력을 남들보다 많이 소모하면 노안이 일찍 찾아올 수 있다."



반면 정시(正視) 경우는 40대 중반 이후 주로 나타난다. 근시(近視)인 경우는 가까운데 잘 보이고 먼 거 안 보임에 따라, 아예 안경을 벗을 경우 가까운 것이 잘 보여, 자각이 늦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근시, 원시, 정시 모두 노안을 영구적으로 피할 수는 없다. 게다가 현재 노안을 위한 특별한 예방법은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할 길 없는 노안이 시작된다면 일찌감치 안과를 찾아가는 게 현명하다.

현재 안경, 콘택트 렌즈 사용 외에 다양한 종류의 노안 수술법이 나와 있다. 보통 수정체를 갈아끼우거나 각막수술, 두 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00% 영구적 교정은 아니라고 말한다. 즉 노안으로 인한 불편함은 많이 감소시켜 주지만 나이가 먹음에 따라 교정 기한이 다하면 어쩔 수 없다는 의미다.

또한 노안으로 오는 돋보기 사용은 권장할 만 하다. 일부에서는 돋보기를 한번 쓰면 더욱 더 두꺼운 렌즈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며 애초에 안 쓰는 게 낫다는 설도 있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김준현 교수는 "돋보기를 쓰지 않아서 생기는 노안으로 오는 불편함이나 두통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일찍 돋보기를 써서 자기 능력의 절반 이하로 조절력을 사용, 고갈시키지 않게 하고 편하게 보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즉 무리하게 눈을 혹사시키면 눈의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부 '졸보기'라 불리는 대중 제작된 돋보기는 쓰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유명 기자



### 평소 눈 건강을 위한 지침들

1. 보고자 하는 대상을 볼 때, 시선은 약간 아래로 향하게 본다.
2. 녹황색, 자외선 도는 야채 및 과일을 섭취한다.
3. 자극적 조명에 눈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컴퓨터 작업시 50분 작업 기준, 10분 휴식을 준수한다.
5. 평소 적당한 안구 운동을 통해 눈근육의 탄력을 유지한다.

세번째 주인공

## 아이마켓 안경원

김영찬 안경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존슨앤드존슨 비전케어 교육센터™ (TVCI™ 이후 비전케어 교육센터™)는 수준 높은 시력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경사들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력 교정 전문가들의 실무 개발 및 전문적인 발전을 위해 설립된 혁신적인 교육 자원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680 여명의 안경사 분들이 존슨 앤드존슨 비전케어 교육센터™를 다녀가셨습니다. 그 중 지속적인 참여로 3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아이마켓 안경원의 김영찬 선생님의 교육 이수 후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아큐브®** : 선생님께서는 비전케어 교육센터™의 콘택트렌즈 기본, 난시 교육,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모두 이수 받으시고 또 아이마켓은 다른 선생님들도 교육에 많이 참여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참여하셨나요?

**김영찬 선생님** : 우리 안경원에는 6명의 안경사가 있습니다. 그 중 3명이 3개의 교육을 모두 이수 하였고 다른 분들은 한가지 교육 이라도 모두 다녀오셨습니다. 직원들끼리 자연스럽게 교육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 되어 같이 가는 편 입니다. 교육은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쉬는 날 일부터 시간을 내서라도 참여하려고 노력합니다. 아큐브® 같은 경우는 타 회사와는 달리 자사제품 홍보 보다는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 전반에 대한 교육과 고객응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좋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내용이 아주 흥미롭고 마음에 듭니다.

**아큐브®** : 3가지 교육 중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가장 유용한 교육은 무엇이었나요?

**김영찬 선생님** : 저는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이론 위주의 교육과 달리 아큐브® 에서는 다른 곳에서 배울 기회가 없는 고객 응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있어서 다른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 교육보다 가장 차별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큐브®** : 그렇다면 교육을 받으신 후에 실무에서 적용해보신 적이 있나요?

**김영찬 선생님** : 물론입니다. 하루에 많게는 10명 정도의 콘택트렌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상담하게 되는데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나 불편함을 호소할 때도 교육 내용을 떠올려 응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교육 이후 사소한 것이지만 고객에게 카드전표에 서명을 위해 불편을 건넬 때도 배운 것을 적용해서 건내고 있을 만큼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아큐브®** : 저희 비전케어 교육센터™의 교육 일정과 정보는 아큐브® 홈페이지, 안경계 그리고 본지 등 여러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경로로 교육일정을 접하셨나요?

**김영찬 선생님** : 인터넷으로 주문만 하는 걸로 알았는데 교육일정도 나와있군요. 전 주로 담당 영업사원과 홍보자료를 통해서 교



육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방문 이후에 교육센터에서 보내주는 자료를 보고 쉬는 날에 맞춰서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아큐브®** : 3월부터 비전케어 교육센터™ 교육 과정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김영찬 선생님** : 물론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교육 일정이 한 달에 여러 번 있어서 안경사들이 좀 더 편하게 방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두 번으로는 일정을 맞추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아큐브®** : 선생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을 받으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 저희도 기쁘네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더 좋은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